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12. 15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공공주택총괄과	담당자	·과장 성호철, 사무관 김병채 ·☎ (044) 201-4514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등 통합 공공임대 관련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 12.15) >

- ◆ 동탄신도시 행복주택(A4-1블록) “살고 싶은 임대” 호평 받았지만 총 1,640가구 중 410가구가 공실, 인근 민간 아파트와 온도차
- ◆ 수요 고려 없이 물량 채워, “기본적인 수요 총량을 알기 위해서는 대기자 명부를 만드는게 시급한데 2023년으로 미뤄”

- 화성 동탄 A4-1블록은 공급물량의 80%를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며, 총 1,640호로, 이 중 1,233호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.
- 추후 공실은 계층 제한 및 소득·자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여 공급할 계획으로, 수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실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
- 정부는 앞으로 전용면적 60~85㎡의 중형주택을 늘려 나가는 등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,
-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단가를 5% 인상하여 '20년 8,025천원/3.3㎡에서 '21년 8,426천원/3.3㎡로 높였으며, 중형주택 공급이 포함된 통합 공공임대 예산도 1,813억원을 '21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.

- 아울러,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은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, 내년 상반기 도입방안을 마련하고, 이후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로 설정하는 등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, 소득 연계형 임대료 체계도 내년 상반기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김병채 사무관(☎ 044-201-4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